



권명아씨

소명출판/A5신/328면/13,000원

문학평론가 권명아씨(36, 연세대 강사)가 펴낸 평론집 《맞장뜨는 여자들》(소명출판)은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다. ‘맞장뜨다’는 낱말은 웬만한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은어다. 한 국어사전에는 “맞장까다 : 맞아 결하다. (우범자의 말)”로 등재돼 있다. ‘여자들이 맞대결한다?’ 누구와, 왜 그래야 하는지 성급히 묻고 싶어진다. 그가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단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삶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에서 떠도는 언어를 선택한 것은 삶에 밀착하면서 페미니즘 담론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죠. 페미니즘을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근대적 어법에 정면 대결한다는 뜻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 편협한 페미니즘 비판적으로 해체해

지난해 펴낸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책세상)에 이은 두번째 저작인 이 책은 문학담론의 영역에서 페미니즘이 초래해온 ‘자가당착’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해 역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의 문법을 파헤치고 있다. 김씨가 먼저 ‘맞장’으로 호출한 대상은 계토화된 페미니즘 담론이다.

“기존 학계나 평단에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만의 문제로 특화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학제도 속에서 페미니즘은 ‘문학적 여성할당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냉소마저 날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살롱의 언어화한 셈이죠. 페

## “나는 젠더를 연구한다”

《맞장뜨는 여자들》 펴낸 권명아씨

권명아씨가 펴낸 《맞장뜨는 여자들》은 제목만큼이나 도발적이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에 갇힌 페미니즘의 자가당착을 비판하고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정을 따져 묻는다. 근대는 주체성의 형성과정에서 여성을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켰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을 타자화 해온 근대적 역사과정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게 권씨의 주장이다.

미니즘은 오히려 젠더를 남성과 여성으로 가르는 근대체제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씨는 근대 자체를 젠더화하지는 급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킨다. 프랑스 혁명에서 드러나듯, 여성이야말로 ‘근대=시민사회=국민국가’가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창작품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근대의 역사적 과정에서 여성을 2등 국민이자 2등 시민으로 각인시켜온 주체성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젠더의 전략이 주효하다고 강조한다.

“근대 이후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은 마지막까지 당연시된 구분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자연스럽고 당연할까를 고민하고 회의하는 게 젠더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근대가 설정한 최후의 보루를 해체하는 작업이죠.”

### 박완서와 배수아 작품 주목해

여성의 개별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성의 그물에 가두는 근대의 어법을 공격하는 데 유효한 텍스트로 권씨가 주목하는 작가가 바로 박완서다. 그가 1994년 《작가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평문이 바로 〈박완서 문학연구-억척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다. 이번 평론집에서는 다섯장에 걸쳐 박완서 문학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여성들 안에서도 무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가족이나 페미니

즘으로 코드화시키는 것이 문제죠. 역사적 경험 속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페미니즘이 감당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완서의 문학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주체의 서사를 구성하는 데 제격인 텍스트죠.”

권씨가 박완서와 함께 비평적으로 ‘편애’하는 작가는 배수아다. 그는 배수아의 작품에서 1990년대적인 징후를 읽어낸다. 거개의 평론가들이 배수아의 소설에서 신세대의 일상에 대한 묘사라든가 포스트모더니즘적 현실의 풍속도를 보여준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씨는 자신이 수락한 건전한 부르주아 도시의 질서를 그 안에서 뒤집어본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준다.

“배수아의 소설은 우리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분열상을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그가 그리려는 아이들은 유명 메이커의 청바지를 입고 공원벤치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고 있지만, 무미건조한 일상 속으로 편입돼가고 어른들 세계의 위악을 알아버린 조숙한 아이들처럼 분열된 아이덴티티를 간직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극단화된 비동시성의 시대를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권씨는 인터뷰 중간중간에 “나는 여성작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젠더를 연구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기존의 페미니즘 비평가와 단호하게 선을 그으려는 이 발언에는 하나의 ‘유행상품’으로 전락해버린 페미니즘에 대한 경계심이 묻어 있으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코드로 새롭게 사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 박천홍 기자